

통권 제 231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1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찰해라 8
큰 단련의 시간



살다 보면
가마꾼의 탄식



서원당 안의 불교
불교의 중단명이
다른 이유

 불교충지중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대승 보살행

대승의 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이지의 세계가 아니고 생생한 인생의 고락(苦樂)을 겪으면서 이것을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다.



지혜의 뜨락 _ 38

새해에는 기다림
실천하기

_ 방귀희



속담으로 보는 불교 _ 46

천 리 길도
한 걸음 부터

_ 김성철



여행여담 _ 57

해파랑길 기행上

_ 우연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 불교이야기

17 죽비소리

20 살다보면

26 산책

28 붓다in미디어

31 경전에서 찾은 지혜

34 마음의 등불

38 지혜의 뜨락

42 십선성취

46 속담으로 보는 불교

50 가배이야기

54 차항기

57 여행여담

62 문화재 해설

66 서원당 안의 불교

68 뜻 바꾸기

70 씨앗 한 알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 -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 김천

보시布施 2 - 화령 정사

새로운 불교중흥의 꿈 - 김봉래

가마꾼의 탄식 - 이옥경

1월 - 김대곤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작가

마음을 닦지 않으면 어리석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대한 끝에 양춘 있다 - 김준섭

새해에는 기다림 실천하기 - 방귀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남해 정사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김성철

사찰의 커피문화 - 김상미

한겨울 녹차와 함께하기 - 김정애

해파랑길 기행上 - 우연宇研

수월관음도 자비를 건네는 관음보살 - 위드다르마 편집실

불교의 종단명이 다른 이유는? - 해광 정사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4개의 형상形象 만다라 - 김재동

내 앞의 한 사람이 곧 우주다 - 법상 스님

파랑새는 언제나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찾아와 병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남매는 할머니의 딸을 살릴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의 세계로 떠납니다.

남매는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혼령을 만나고,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고,
‘숲’에서 자연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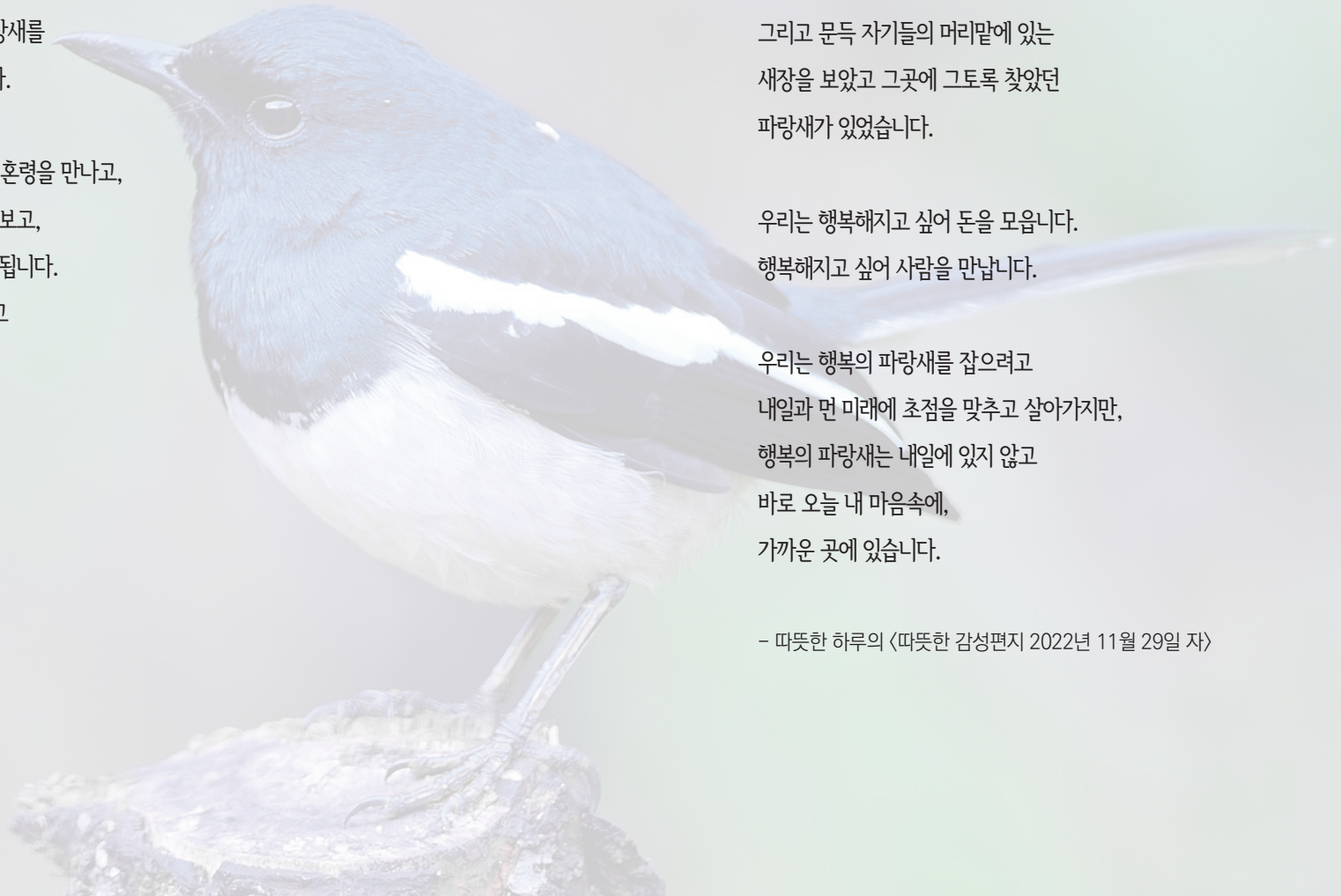
다음 행선지인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행복의 허무함을 보았고
참다운 행복은 건강, 정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며
‘파랑새’는 마음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미래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들의 머리맡에 있는
새장을 보았고 그곳에 그토록 찾았던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돈을 모읍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내일과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내일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11월 29일 자>



불공 잘해라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8화 - 전쟁

대성사는 좌와 우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공평무사함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양극단을 여의는 불교 중도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적으로 두고 대립해서는 결코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태도는 하얼빈 시대 이후 지속해온 생활의 방침이었다.

2.7 사태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100여 명이 숨졌고 8,500명 이상이 체포돼 투옥되었다. 대성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잡 중학교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로 줄일 수 있었지만, 더 큰 폭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국적인 파업과 봉기 사태가 진정된 것도 잠깐 사이,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도 4.3사건이 벌어졌다.

시대는 피와 광기로 물들었다.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기억이 시작된 이후 대성사는 한순간도 편히 마음을 놓을 때가 없었다. 어린 걸음으로 망명길을 걸어 압록강을 건너야 했고, 독립전쟁의 고초를 지켜봐야 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향에서 멀리 떠난 이역의 땅에서 살아야 했다. 광복된 조국은 또다시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을 겨누고 있었다.

좌우 충돌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대성사는 평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불교경전과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된다. 이념의 대립과 권력투쟁을 떠난 제삼의길,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은 것이다. 하지만 세속을 떠나 산중에 홀로 수행하는 그런 불교로는 과학과 문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깊이 깨달았다.

20세기 초에 불타오른 중국의 거사 불교 운동은 대성사가 그리듯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데 큰 지침이 됐다. 불교가 더이상 산중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실천은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었다. 대성사는 기복이나 은둔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구할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이념의 대립과 혼돈으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불교 경전과 책에 몰입했다.

좌우 어느 편에도 휩쓸리지 않고 학생을 대할 때는 스승의 위치를 잊지 않고, 누구나 인생의 물음을 구하려는 이에게는 답을 주었다. 밀양 인근에 대성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서 불교 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로 평판이 자자했다.

혼란과 위기 속에도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분단된 남과 북도 조금씩 나라의 꼴을 갖추어 갔다. 대성사의 외아들인 손순표도 성장해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대성사는 새로운 조국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아들의 상경길을 배웅했다.

이 일이 후일 큰 파란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삶과 세상은 모두의 바람대로 풀리는 법은 아니라서 희망으로 시작한 일도 한없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인연과 인과는 깊고 묘한 법이다.

시국은 평온해 보였지만 남한의 정치 상황은 나날이 복잡해져 갔다. 남과 북의 갈등과 긴장도 깊어졌다. 밀양에도 좌익분자를 색출하는 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간 사냥으로 이어졌다.

대성사의 고향에서도 좌익으로 체포돼 야산에서 총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성사는 공무원이자 교사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학생과 친지들에게 엉뚱한 일이 닥칠 수도 있음을 직

감했다. 당시 시류와 정국이 흘러가는 형국은 대성사가 밝힌 사물의 발전 법칙과도 흡사했다.

“좋은 인^善인과 좋은 연^善緣이 만나면 좋은 결과^善果가 생긴다. 좋은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은 것과 같다. 선한 인^善인과 악한 연^惡緣이 만나면, 우세한 편에 따라 결과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악한 인연이 만날 경우 당연히 악한 결과가 생긴다. 악한 인^惡인과 선한 연^善緣이 만날 때, 우세한 편에 따라 선과 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당시의 시국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 서로 선을 주장하지만, 악과 만나 힘을 겨루다가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했다. 선악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갈리는 일도 잦았다. 대성사는 결국 내 안의 선한 인^善을 일으켜야 하고 밖으로 착한 연^善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가족과 주변에도 이런 이치를 늘 이르고 자중하고 시류에 휩쓸려 악한 편에 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성사는 좌와 우의 대립을 넘은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보았다. 평등을 주장하는 좌의 입장과 자유를 앞세우는 우의 입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길이 불교에 있다고 간파하였다. 대성사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불교의 수행과 해탈에서 찾아냈다. 중도를 기반으로, 세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꼐다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것이 해탈의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불평등의 모순이 사라지는 새로운 길과 만난 것이다.

위태롭던 정국은 결국 전쟁이라는 파국을 맞게 된다.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진 갈등의 골은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전란의 비극을 가져왔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과 더불어 북한군은 건잡을 수 없는 기세로 밀고 내려왔다. 남한 땅 상당수가 북한군의 점령 하에 떨어졌고, 대성사가 있는 밀양을 지척에 두고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이 펼쳐졌다. 지축을 울리는 대포소리는 밀양에서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전쟁 속에서 인간은 한 없이 나약한 존재가 된다. 거칠 것 없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때로는 적과 동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총알에는 눈이 없고, 포탄에는 동정심이 없다. 누구라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의 두려움을 안고 견뎌야 한다. 전쟁은 세상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대성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기를 만든 것도 한국전쟁이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시름이 닥쳤으니, 절망의 순간이 왔다. 외아들인 손순표의 소식이 끊긴 것이다. 당



1948년 밀양 농잠중학교에서 맨 앞줄 왼쪽 대성사

시 손순표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지금의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는데 전쟁이 예고 없이 터진 탓에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행방 또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난 온 친지들도 손순표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알 만한 곳에 물어도 소식은 닿지 않았고 그렇다고 적지인 서울로 찾아 나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슴은 타고 불안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문은 흥흥하기만 했다. 사상을 의심받으면 처형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북으로 끌려가는 이도 있었다. 더욱이 손순표는 어린 시절부터 활달하고 총명하게 자란지라 대성사와 집안에서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해방된 조국에서 열심히 배워 큰 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도

있었다. 그런 금쪽같은 자식이 온데간데없이 행적을 알지 못하게 되자 대성사는 사방으로 소식을 묻고 또 물었다. 피난 온 이들 중 고려대학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건 달려가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간청했다. 희망의 실낱을 한 가닥이라도 찾아 나섰지만 어디서도 아들을 보았다거나 소식을 아는 이들이 없었다.

행적은 둘째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성사 집안에서는 외아들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문을 활짝 열어 오고 가는 피난민들을 불러들여 밥이라도 한 끼 먹이며 멀리 서울과 피난 행렬의 소식을 물었다. 일부러라도 어려운 이를 찾아가 적선을 하여 티끌 같은 공덕이라도 자식의 앞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대성사는 금강관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밥이 입에 넘어가겠소. 오늘부터 어디든 나서서 찾아봐야겠소.”

금강관 또한 이런 대성사의 마음을 헤아렸다. 덕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민들이 몰려왔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지만, 딱히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참에 피난민 으로부터 솔깃한 소문을 들었다.

“저기 대구 밖에 용한 이가 있는데, 죽은 사람 소식이건 산사람 소식이건 모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생사를 못 찾는 이들 여럿 찾았다고 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했다. 대성사는 한달음에 그를 찾아가 아들의 행방과 생사 여부를 물었다. 용하다는 보살은 대성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은 소식은 살아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꿈쩍 못하게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덕을 많이 베풀고 부처님전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외우다 보면 머지 않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종잡을 수 없는 말 한마디였지만 한 가닥 빛을 찾은 것 같았다.

보시의 종류와 완전한 보시

불교에서는 보시를 수행의 입문으로 삼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불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만한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보시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더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바로 시론^{施論}, 계론^{戒論}, 생천론^{生天論}의 삼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움이 적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얘기해 줘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흥미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도에 끌어들이 삶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시고자 삼론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가 공덕을 쌓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도 칭송을 받고 그것이 복을 가져다준다. 주위에 있는 인색한 사람과 잘 베푸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알 것이다. 잘 베푸는 사람은 늘 마음이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잘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기 마련이다. 그와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주위의 경멸을 받고 스스로도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 않다.

보시의 범위는 매우 넓다. 물질적인 것으로 주위를 돕는 경우도 있지만 가르침을 널리 베푸는 것도 보시이다. 불교에서는 보시의 종류를 삼시^{三施} 혹은 삼종시^{三種施}라고 하여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재시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시는 가르침, 특히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무외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중생을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서 중생들을 전쟁의 공포나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도 무외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생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시는 관세음보살을 일러 시무외자 혹은 시무외보살이라고 한다.

재시, 법시, 무외시 이외에도 또 다른 3가지 보시가 있다. 이것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음식시^{飮食施}, 가난한 이에게 재물

을 주는 진보시^{珍寶施}, 정법^{正法}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신명시^{身命施}의 3가지 이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하여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만 해도 큰 공덕이고 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겼다.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넘쳐서 음식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지구 곳곳에는 십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음식을 아끼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것이 된다.

재물을 나누어주는 진보시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는 진귀한 보물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흔하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긴 쉬워도 정말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하여 준다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렇게 아끼는 재물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아끼는 보배를 남을 주듯이 하라는 의미에서 진보시라고 한 것이다.

신명시는 말 그대로 바른 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으로서 불자라면 불교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먹을 것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하기 어려운 보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은 신명시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살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정법을 알리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진 이차돈 성사를 으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는다는 신명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보시 가운데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필자로서는 환갑이 되는 해이기에 앞날을 그리기에 앞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고, 꿈같이 아무 한 일이 없는 듯 허허롭다. 어느 새 귀밀털이 하얗진 세월 앞에 공수래공수거, 인생무상이 절로 머릿속을 스쳐간다.

우리가 스스로 그려온 삶의 궤적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아니 한 치의 오차 없이 우주법계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불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리라 다짐하건만 이렇게나 허허로운 느낌이 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때가 되면 알거요’ 하던 선배님들의 말씀이 귓전을 스친다.

돌아보면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오해도 많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용케 이만치라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하면 지나친 자평일까. 단박에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위안해 본다.

우리는 각자의 자화상을 가지는 동시에 타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물론 그 잣대가 같을 수는 없다.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해 남에 대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남을 높여 지나친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둘 다 불교의 중도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하겠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들 중생의 마음인 것을 어찌랴.

주의할 것은 다른 이의 평가를 자기보다 못한 이들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중의 평가는 언제나 냉엄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러저런 일을 했고 이러저런 사람이야’ 하는 평가는 본인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엄연한 현실이고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평가는 때론 봄 햇살처럼 따스하지만 때론 가을 서릿발처럼 차갑다.

필자는 웬지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말이 좋았다. 어떤 일이든 한 날 한 시에 한꺼번에 급하게 이루기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취하자는 생각 덕분에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보다 노력을 게을리 하는 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아무튼 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때 그 때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하자’ 하는 자세와 연결되는지도 모르겠다.

정년을 목전에 두고 올해는 부처님 나라인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려 한다. 부처님께 그간의 삶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발심을 하고 싶어서다. 입사 5년차에 처음 나간 해외 취재로 인도 성지순례를 했던 인연을 떠올려 본다. 순례단에 끼어 성지를 돌아보고 방송할 계획으로 현장 인터뷰와 스케치도 해야 해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바빴던 것 같다.

인도 성지여행은 교통 등 상황이 열악하기에 녹록지 않다. 짧은 시절임에도 차를 타고 하루 10시간씩 강행군하는 일정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한 번은 더 와야지’ 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은 덕분에 또 한 번의 인연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 싶어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과거의 궤적 위에서 펼쳐진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는 점에서 우리는 늘 삼세^{三世}를 통하여 사는 셈이다. 인도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덕분에 세계종교로 발전한 불교, 그리고 다시 찾게 된 부처님 나라를 그리며 새로운 불교중흥의 꿈을 다져본다.

가마꾼의 탄식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조카뻘쯤 되는 후배로부터 결단코! 맨입으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다며 올해는 기어이! 술도 한잔 곁들여서 거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왔다. 결단코, 기어이라니. 평소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도발적인 말투며 단호한 태도에 불안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또 웬일? 약속 장소에 나온 그녀의 얼굴이 오뉴월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보다도 화사하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녀의 말이 무용담에 가깝다.

결혼한 지 24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것쯤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느냐만,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그녀 남편의 성정을 익히 아는 터라 아무리 고향이고 동창회라 해도 그녀의 1박 2일은 가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더군다나 몇 날 며칠을 남편에게 빌고 빌어서 당일치기를 조건으로 간신히 허락(!)을 받아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친구들의 성화를 뿌리치자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이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싶은 마음에 하룻밤을 묵어오는 모험을 감행했다는데.



남편의 성난 얼굴이 떠올라 시시때때로 마음이 졸아들기도 했으나 난생처음 소꿉친구들과 어울려 깔깔거리는 재미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도 잠깐, 아침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서울행 기차에 오르자마자 입안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흔쾌한 허락도 없이 외박이라니. 그것도 남자 여자가 함께인 동창회에서. 남편 뿐이겠는가. 그녀 역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결혼 전에는 산도 좋아 바다도 좋아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워낙에 완고한 남편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오로지 남편에게 맞춰온 그녀였으므로.

강박한 남편으로서는 기절초풍을 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분기탱천해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친구들의 등쌀에 떠밀리다시피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친구들의 말에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게 우물쭈물하던 남편의 진심을 읽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무조건 읍소를 하리라,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제발 용서해 달라...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연 순간, 거실 바닥이 온통 깨진 유리조각이며 모가지 부러진 꽃, 옆질러진 물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꽃병

이, 친정 엄마의 유품이라 1년 내내 꽃을 떨어뜨리지 않는 꽃병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것이다. “여자가!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외박을 하지는 않았겠지!” 냉랭한 얼굴로 쏘아내는 남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예리한 칼끝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와 꽂혔다. 그것은 곧 그녀에 대한 불신의 증표이자 폭력이고 탄압이었다.

그녀는 분노했다.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뜨거운 그 무엇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치욕스러웠다. 꽃밭이라 믿고 싶었을 뿐, 자신의 들은 이미 오래전 온갖 잡초에게 자리를 내준 쑥대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남편은 무자비한 점령군이었고 폭정을 휘두르는 독재자였다. 사과하는 대신 그녀는 한사코 뿌리치는 남편의 손에 거둬들여 청소기와 걸레를 쥐여 주었다.

마침내 남편이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 순간, 그녀는 남편에게 할애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다듬고, 그곳에 함부로 솟아있는 불합리한 특권과 아집, 독선 따위를 뿌리째 뽑아 던지겠노라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니 비로소 보이더라. 인생에 일방통행은 없다는 사실이. 아내이기 전에 여자로, 여자이기 전에 사람으로

마땅히 누리고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성평등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는 그녀, 그래서 그녀는 요즈음 남편과 잦은 충돌을 빚기도 하지만 남편 길들이는 재미가 깨소금 맛이라며 웃었다.

“몇 개월의 시간만큼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고, 배려는 당연해졌다.”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의 대사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욱더 크고 깊어져야 할 미안함과 고마움과 배려가 친해졌다고 해서, 가까워졌다고 해서, 익숙해졌다고 해서 사소해지고 흐릿해지고 당연해지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 갑남을녀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24년 전 풋풋했던 그녀의 헌신 역시 그녀 남편에게도 싱그럽고 기꺼웠을 것이다. 하지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붙난다고, 그녀의 배려가, 그녀의 인내가, 그녀의 희생이 당연시되면서 일상으로 굳어지는 사이 그녀 남편의 오만불손은 나무껍질처럼 두께를 더해 가기만 했으니.

말이 그렇다는 것뿐, 성품 고운 그녀가 설마 남편을 쥐 잡듯 몰

아붙이기야 하겠는가. 가부장적인 남편의 ‘함부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나 할까. 나는 그녀에게 짹짹 박수를 보내 주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착하고 온순하고 마음 따뜻한-누구보다도 결이 고운 그녀다. 그날의 외출도 그녀에게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일종의 시위라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이다.

부처님께서 “법과 계율,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하셨지만 몸으로 짓는 죄 신업(身業), 뜻으로 짓는 죄 의업(意業), 말로 짓는 죄 구업(口業)의 삼업(三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마꾼의 탄식〉이라는 글을 통해 정약용 선생도 일찍이 ‘가마 타는 즐거움만 알고 가마 메는 괴로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려의 미덕을 깨우쳐 주셨건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일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부디 그녀의 웅숭깊은 용기가 아름답게 꽃 피기를. 그래서 다만 몇 걸음이라도 존중받는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디 그녀의 철옹성 같은 아집이 부서지기를. 그래서 다만 몇 걸음이라도 배려하는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들의 겨울이 잉태하고 있는 찬란한 봄을 기다려 본다.

온기 없는 하늘에
가오리 연 펼치고
세찬 바람에 몸통은
찢어질듯 떨고 죽대 없이
흔들어대는 꼬리를 그래도 좋아라

한껏 들뜬 기분에
콧물도 얼고 까만 손등에
입김한 번 불 여유 없어도 그래도 좋아라

여러 해 우리 겨울
구멍이 어설픈 스웨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1월의 바람에도
더운 입김을 토하며 그래도 좋아라

작고 가녀린
까만 복숭아뼈를 스치는
겨울바람에 얼은 바지 밑단의
쓰라림도 잊고 춤춘 강가 그래도 좋아라

수 없는 1월이 지나
이 만큼의 시간위에 서서
오늘 또다시 그 그림을 그리진 못하지만
눈 감으면 배시시 웃음 지을 수 있는
가오리연의 기억 그래도 좋아라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3 사랑의 블랙홀 (Groundhog Day, 1993)

감독 해롤드 래미스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들이 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히는 타임루프물은 로맨스와 결합할 때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심지어 영미권의 <이프 온리(2004)>, 일본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2016)>, 한국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등 국적을 가리지도 않는다. 이런 타임루프물과 멜로 영화 간 장르 이중교배의 원조 격인 영화가 있다. 빌 머레이 주연의 <사랑의 블랙홀>이다.

대니 루빈이 쓴 해롤드 래미스 영화는 불교의 정수를 담아냈다. 필(빌 머레이)은 하루가 반복되는 체험을 한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 갇힌 필은 놀랐다가 좌절했다가 결국엔 지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새롭게 반복되는 날마다 새로운 업보와 마주한다, 즉 희로애락, 권력, 욕망, 경험 등 인간의 모든 애착을 겪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은 의외의 행보를 시작한다.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태도를 바꾼다. 그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타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매일 반복되는 상황 아래서 익숙한 장소들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숨겨진 사연들을 속속들이 알아내 사람들을 위로하던 필은 그렇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엣지 오브 투모로우(2014)

마음을 닦지 않으면 어리석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계 하루를 쌓아 가장 완벽한 하루에 도달한다.

인간에게는 모든 욕망의 근저를 이루는 ‘갈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에 기반을 둔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業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수행으로 삼을 때, 중국에는 윤회의 순환을 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고통^苦의 원인인 집착^集을 극복 또는 제거^滅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뜻한다.

그것을 필이 마침내 깨우친 것이다. 타인을 위한 사심 없는 봉사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며 진정한 삶의 목적임을 말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가르침이다. 여담으로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선사^{禪師}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닦지 않고 항상 나쁜 행동에 습관이 되어, 착한 법과 악한 법, 좋은 것과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며, 무상하고 달라지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일신의 재산과 사업이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은 마땅히 훌륭한 지혜를 얻고, 지혜 있다고 자칭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출요경, 出曜經』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 닦는 것임을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뗏목의 비유를 들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다.’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떼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뗏목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비구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써, 교법교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사유경, 蛇喻經』 불교종전 발췌



대한 끝에 양춘 있다

김준섭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今當大寒日
此後有陽春
耐得寒頭苦
逢春樂意新

오늘 대한을 맞이하였으니
이후에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
끝자락의 모진 추위 견뎌 내어야
봄을 맞아 즐거움이 새롭겠지.

- 유인석(柳麟錫, 1842~1915), 『의암집(毅菴集)』 권2

올해 양력 1월 20일은 절기로 대한^{대한}이다. 실제로는 소한의 추위가 더 맹렬하지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대한이 일 년 중 가장 추운 날로 인식되곤 한다. 대한 이후에는 추위가 한풀 꺾이고, 며칠 있으면 봄소식을 알리는 입춘을 맞이하니 대한은 따뜻한 봄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남은 추위를 어찌 보낼까 하는 걱정보다 다가올 봄날에 대한 기대가 앞선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자연의 변화는 우리 인생살이의 굴곡과도 비슷하다. 매서운 겨울 마냥 어렵고 힘든 때가 있으면 따뜻한 봄날



© Photo by 이경진. All Rights Reserved

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다. 대한과 같은 힘든 고비만 잘 견뎌 내면 분명 좋은 날은 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인생의 법칙을 잘 표현한 속담이 ‘대한 끝에 양춘陽春 있다.’이다.

이 시의 지은이 의암 유인석 선생은 조선 말 위정척사 사상으로 잘 알려진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스승 이항로와 함께 상경하여 혼란한 민심을 목도하였고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화서학파의 동문들과 의기투합하여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자, 선생은 일제의 만행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대의 규모는 한때 3,000명이 넘을 정도였지만 제천 전투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관군에게 패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선생은 본거지를 서간도로 옮겨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 관리의 횡포로 불가피하게 의병대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선생은 망명 중에도 두 차례 귀국하여 고종을 접견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나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자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해주로 떠났다. 연해주에서 십삼도의군十三道

義軍 도총재都總裁를 맡아 의병 세력들을 규합하고 합병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일본의 공작으로 연해주의 항일 운동가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다시 만주로 거점을 옮기게 된다. 그곳에서 망명 온 지사들을 모아 항전을 준비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74세의 일기로 한스러운 생을 마쳤다.

이렇듯 모진 삶을 살았던 선생이기에 대한을 맞아 쓴 시에는 큰 울림이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조국에도 좋은 시절이 올 것이란 확신과 그날이 온다면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고난쯤은 얼마든지 견디겠다는 선생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다. 선생이 만리타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은 이러한 확신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선생은 봄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의 말대로 대한이 지나 봄날은 다시 왔고, 그 즐거움은 새로웠다.

새해에는 기다림 실천하기

방귀희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숨대평론〉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성격을 냄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빨리 끓는 장점을 이용하여 세계가 놀라워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두어야 한다. 목표를 계속 상승시키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지나친 경쟁 구도로 인간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닐까 싶다. 스포츠에서 성적이 부진하면 바로 감독을 경질한다. 어디 스포츠뿐이라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곧바로 공격을 가한다. 나무에 이제 막 오르고 있는데 마구 흔들어서 떨어트려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자기편 사람을 내세워 다시 나무에 오르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상대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리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서로 흔들어대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나무에 오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간다. 이런 소모전을 하다보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자기가 못먹는 감은 남도 못먹게 찢어나본다.’는 말처럼 이런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인도의 간디는 기차를 타고 보니 신발 한 짝이 벗겨져나간 것을 알고, 나머지 한 짝 신발을 벗어 기차 창밖으로 던졌다고 한다. 간디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은 동승인이 그 이유를 묻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발 한 짝을 누군가가 주웠다면 다른 한 짝의 신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신발을 주운 사람이 그 신발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마음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당시 인도는 신발을 구입하여 신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간디는 신발을 잃어버린 것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신발을 주워 신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면 남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와 비교하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간디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길 수 있었던 듯하다.

불교도 기다림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석가족의 태자가 출가를 했을 때 사람들은 태자가 곧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태자가 출가자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신하를 보내 태자가 돌아오도록 회유하였다. 결국 싯다르타 태자는 깊은 산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 사람들은 태자가 단시간에 수행을 마치고 사문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싯다르타는 사문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자와 함께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떠났다. 태자가 고행을 마칠 때까지 6년 동안 기다려준 사람은 교진여 등 다섯 비구에 불과하였다는 기록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싯다르타는 태자가 아닌 깨달은 석가족이란 뜻의 석가모니가 될 수 있었다. 석가모니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은 바로 다섯 비구였다. 싯다르타도 고행 속에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였기에 부처님이 되었고, 다섯 비구도 기다려주었기에 불교의 진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형성될 수 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역사, 2023년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새해는 기다려주는 일부터 시작하자.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난하며 내몰지 말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기다림이 미덕이다. 재촉하고 비난하면 포기하게 된다. 2023년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고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는다.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과거로 환생을 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다. 이러한 환생 회귀물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져버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젊은 MZ세대들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분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환생이나 인생 2회차 기회를 우연찮게 얻었다 하더라도 전생의 기억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환생이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기회를 갖게 된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전생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그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살게 된다.

최근에 환생 회귀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아들'의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이 드라마는 한국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재벌집 막내아들로 환생하여 재벌가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판타지 환생 회귀물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가의 승계 싸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대한 의혹, 복수 이야기를 다룬다.

이처럼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나 영화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이러한 것이 비현실적인 생각과 망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과거의 잘못이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바로 잡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로 내 나이 51살이 되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니 지난 50년간의 인생 1회차가 있었고 이제 또 다른 50여년의 인생 2회차가 남아있다. 그리고 환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나는 인생 1회차의 모든 기억을 지니고 앞으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후의 내 삶은 환생 또는 인생 2회차가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살게 될 남은 50여년의 인생은 환생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 나를 설렌다.

만약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하나있다. 대학 3,4학년 때 매일같이 도서관에 아침 일찍 출석도장을 찍고 자신의 옆자리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던 대학후배에게 따뜻한 밥한 끼 사주고 싶다. 법관 출신 집안의 막내라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되어야 한다던 후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7년 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였다.

드라마에서처럼 인생 2회차가 과거로의 환생이나 회귀로부터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인생 2회차는 미래에 있는 것이고, 밝은 인생 2회차를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인생 1회차에는 후배에게 따뜻한 밥한 끼 제대로 사주지 못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인생 2회차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식사 자리에서 정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싶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예부터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렀듯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가 삼천 리 정도 된다. 그 3분의 1인 천 리라고 해도 다 걸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천 리나 떨어진 먼 곳에 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첫 발걸음부터 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어떤 일이든 실천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아무리 큰일도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교수행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지계에 있다.

당나라 문인 백낙천이 도립선사에게 여쭙었다. “부처님 가르침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도립선사가 대답했다. “그 어떤 악행도 짓지 말고, 온갖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이 구절에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라는 두 문구를 덧붙이면 칠불통계게



佛通戒偈가 된다. 칠불통계게란 비바시불에서 석가모니불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훈계하신 계송’이란 의미다.

도립선사는 칠불통계게 가운데 앞의 두 구로 답한 것이다. 그러자 백낙천이 말했다. “그 정도 가르침이야 세 살짜리 어린애도 아는 것입니다.”

도립선사가 말했다. “세 살배기 어린애도 알지만, 여든 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다.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것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인데 이를 항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악^惡을 그치고 선^善을 행하려면, 선과 악의 정체가 분명해야 한다. 불전에서는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兩舌}, 욕설, 꾸밈말^{綺語}, 탐욕, 분노, 사된 종교관^{邪見}의 열 가지를 십악이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십선이다. 그래서 이들 열 가지 악행 앞에 ‘아니 불^不자’를 붙여서 십선계라고 부른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금강승이든 최상승이든 불교신행의 출발은 십선계의 실천에 있다. 불교에 입문한 후 아라한, 보살, 성불과 같은 엄청난 목표를 지향하면서 불교적 신행을 시작하지만, 그 출발은 불교적 윤리인 계행의 실천에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에 입문하지만, 지계의 발걸음을 떼어야 진정한 불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불전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윤회의 현장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곳으로 구분한다. 이를 삼계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색계나 무색계의 경지가 되어야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즉, 내 마음이 최소한 욕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욕계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동물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계다. 지계행은 우리를 이런 동물성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불교수행은 계, 정, 혜의 삼학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수행의 순서이기도 하다. 지계행을 통해 동물성에서 벗어나야 ‘마음을 모아서(정) 지혜를 닦는’ 정혜쌍수의 수행이 가능하다. 깨달음의 천 리 길을 가고자 할 때, 내딛는 불교수행의 첫 걸음, 바로 지계행의 실천에 있다. 계행이 없는 불자는 아직 수행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다. 아무리 불교를 많이 알아도 ...

사찰의 커피문화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사찰의 커피문화 활용방안의 마지막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활용한 불교 상담 방안을 내세울 수 있다. 템플스테이 수행 프로그램에 커피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상담 기법 즉 명상에 응용하여 내담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연구해보는 방안이다. 이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인간의 내면체계와 연결되는 만큼 신중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먼저 차와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차이 또는 차와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와 같은 각각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접근하고 접목시켜야 함이 강조된다. 무조건적인 응용이 아닌 충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커피가 상담치료 방안으로 적절한지 살펴보고 그로 인한 다양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현교에서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와 커피는 수행을 돕는 조도(助道)로서 그 맥락이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와 커피에 함유된 성분과 ‘음다’ 후 효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둘을 하나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이를 성질의 차이와 시간의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차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느낌속의 여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커피는 기



분을 올려주고 빠른 순환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보다 내려앉은 마음에 커피는 빠름속의 여유, 즉 활약이라 볼 수 있다.¹⁾

시간의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차는 느리고 커피는 빠르다고 여긴다. 그러나 차와 커피 모두 우리고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음다’, ‘음미’를 위한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느낌과 빠름이라는 시간적 개념

으로 설명하는 까닭은 ‘음다’, ‘음미’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는 여러 번 우려서 마시는 ‘음다’와 ‘행다’를 통해 마주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오래도록 지속된다. 그러나 커피는 성분의 차이로 인해 ‘음미’후에 그 여유가 차에 비하여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출 후에 ‘음미’를 다하면 더 이상의 반복 추출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른 출근길에 모닝커피 또는 식후에 테이크아웃²⁾ 커피를 사들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즉, 찰나의 시간 속에서 찰나의 여유를 커피 한잔에 담아 온전히 느끼려는 현대인들의 빠름속의 여유인 것이다.

이에 불교의 수행이라는 방편으로 접근하자면 차와 커피는 둘이지만 하나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 빠름 속의 커피라고 하는 말은 성분과 성질의 특성이 각성을 일으켜 수행

1)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자칫 나른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일깨운다. 차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2) 테이크아웃(Take Out) :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 혹은 포장된 음식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에서는 ‘테이크어웨이(take away)’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27&cid=42028&categoryId=42028>, 대중문화사전 제공.

에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방편이기도 하다.

일설로 들은바, 차 속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현교의 스님들 말씀에 의하면 차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은 다르다고 한다. 차와 커피의 카페인은 성분구조상 같은 카페인이지만 카페인 함량이 다르며 이로 인해 체내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차 한 잔의 카페인 함유량은 찻잎의 종류와 차를 끓이는 방법에 따라 20~90mg인 반면, 커피 한잔의 카페인 함유량은 60~180mg이다.³⁾ 같은 무게의 찻잎과 커피콩을 비교해 보면 차에 훨씬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낮은 온도로 차를 우려서 찻잎 중의 카페인 성분이 60~70%정도만 우려나와 커피보다 차가 그 함유량이 훨씬 적은 것이다.⁴⁾ 또한 차에는 커피에는 없는 데오피린, 카테킨, 데아닌 이라는 성분들이 카페인과 결합하여 카페인을 불용성 성분으로 만들거나 과도한 각성의 활발한 활동을 억제한다. 따라서 차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보다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카페인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있다.⁵⁾

3) 『茶(다) 암-심장질환 예방효과 미국인들 입맛 끈다』, 동아일보, 1999.9.13, p.33

4) 신혜영 기자, 『카페인, 알고 먹자』, 인터넷 신문 시사매거진, 2005-11-09,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

5) 신혜영 기자, 『카페인, 알고 먹자』, 인터넷 신문 시사매거진, 2005-11-09,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

한겨울 녹차와 함께하기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외출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1월 한겨울입니다. 무료해지기 쉬운 계절이기에 그 시간을 조금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속 녹차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상에서 녹차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녹차 잎으로 천연 방향제인 포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녹차 잎이나 우린 녹차 잎을 말린 후 거즈면에 담아 입구를 막고 필요한 곳에 두어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 화학성분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불안감과 거리낌이 증가하고 있기에, 천연재료인 녹차를 사용한다면 여러 걱정들도 덜어 줄 것입니다.

물론,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있지만 옷장, 화장실, 차안, 냉장고 안에 두면 녹차 잎이 나쁜 냄새도 잡아주고 곰팡이의 번식도 막아주기에 번거로움에 비해 이로운 점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겨울철, 적당히 마른 녹차 잎

을 잠들기 전 침대 곁에 둔다면 가슴 역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게 해 줄 것입니다. 녹차는 음용 시에도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녹차 향 또한 테라피 효과가 있어 머리의 열을 식혀주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는 겨울철 비실거리는 화초들에게 천연영양제로도 활용됩니다. 녹차에는 질소, 아미노산, 미네랄 등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소 함량이 높아 우려낸 녹차 잎이나 녹차가루를 화분 위에 얹어두면 천천히 분해되어 거름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평소 녹차를 자주 마신다면 일회용 티백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 있는 또는 사무실에 있는 화분에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녹차를 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겨울철 찬 공기와 건조함에 더 취약해지는 피부를 위해 녹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용한 녹차 티백을 물에 다시 살짝 우려 세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사용한다면 녹차의 탄닌 성분으로 인해 피부의 부기, 미백, 진정 효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겨울철 두피가 많이 건조할 때는 헤어 샴푸 후 마지막에 녹차 물로 두피를 헹구어줌으로써 비듬예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한 잔과 함께할 다과나 주전부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녹차카스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케익믹스 250g, 녹차가루 10g, 계란 2개, 우유 200ml, 설탕, 오일 또는 버터면 됩니다.

1) 계란2개를 잘 풀어 설탕과 우유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2) 핫케이크가루와 녹차가루에 계란 푼물을 넣어줍니다.

이때, 가루를 체에 걸러주면 뭉침없이 더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완성됩니다.

3) 가루와 계란 푼물을 잘 섞어주어야 합니다.

4) 가정용 전기밥솥 안쪽에 오일이나 버터 녹인 것을 바른 뒤 반죽을 부어줍니다.

솥을 바닥에 통통 쳐주면 반죽의 거품이 줄어들어 완성 후 카스테라 속 공기층이 덜해 식감이 좋습니다.

5) 전기밥솥 찜모드 40분정도 설정합니다.

6) 30분정도 식힌 후 드시면 찐한 녹차 향과 함께 맛있는 카스테라가 완성됩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함으로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적당량의 물을 섭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기나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염증완화에도 좋은 녹차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몸이 으슬으슬 춥고 피곤함이 함께 몰려왔다. 몸살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 전에는 느끼지 못한 경험이었다. 나도 이제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으로 스산한 바람이 지나갔다. 집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은 아무 때고 집을 떠나가지만 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행자가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점점 빠져드는 잠결 속에 우리가 걸었던 해파랑길 14코스, 13코스가 동해안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글날이었던 지난 10월 9일 오전 8시,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 반겼다. 터미널은 지난밤 피로 탓인지 한산하기만 했다. 매표창구 앞 텅 빈 자리에는 중년의 한 여자가 시선 없는 얼굴로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 30분이 걸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포항은 버스를 타고 와 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뜻밖의 사람을 만날 것만 같다. 터미널을 나와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900번 버스를 타고 포항 공항에서 다시 9000번 버스로 갈아탔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낮선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여행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얼마를 갔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 뒤를 돌아보니 낮선 풍경이 얼굴을 바꾸어 가며 우리가 탄 버스를 뒤따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47개의 정류장을 지나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도착했다. 날씨는 잔뜩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여 지명이 호미곶이 된 것이다.

광장 안으로 들어서니 좌측 한쪽에 새천년 기념관이 눈에 들어왔다. 2000년이 밝아오면서 새천년 기념행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지금 새천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새천년 기념관은 그때의 희망과 영광을 간직한 채 역사의 유물관이 되어 버렸다.

광장 중앙에 서 있는 대형 조형물은 사진으로 보았던 '상생의 손'이었다. 왼손은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고 오른손은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여 더불어 살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광장 한쪽에는 전국 최대라는 대형 가마솥이 놓여 있었다.

호미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해맞이 행사로 유명한데, 포항시는 새천년 새해 해맞이 행사 때 대형 가마솥에 떡국을 만들어 참가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혔다는 광장 옆 호미곶 등대를 찾았다. 등대는 18세기 중반 르네상스식의 팔각형 건축물 형태로 경상북도 지정 지방문화재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몸매가 늘씬한 여인이 우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도 한다. 발걸음을 옮겨 데크로 연결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무섭게 울렁거리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인 고택(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 위로 불쑥 내밀고 있는 저 손이 부처님의 천수천안(千手千眼)이 되어 사해(四海)의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해파랑길 14코스 출발점에 섰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총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거리가 770km에 이른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14코스는 호미곶 광장에서 구룡포까지 역방향 14.2km 거리였다.

해파랑길 파란색 화살표가 우리를 안내했다. 광장을 벗어나 해변도로를 따라 우회하자 또 다른 모습의 바다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졌다. 파도는 어느새 잔잔해져 있었고 잉크색 바다 저 멀리 수평선이 그림 같이 나타났다. 데크길 건너편에 이곳이 대보1리임을 알리는 마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행정 구역상 원래 ‘대보면 호미곶’이었던 것이 호미곶의 유명세에 밀려 ‘호미곶면 대보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해변도로를 따라 한바탕 웃음소리와 함께 깡통 열차가 지나갔다.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깡통 열차에 탄 어른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배가 슬슬 고파왔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은 정오를 지나고 있었고 이른 아침 출발에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다. 설마 이렇게 아름다운 해파랑길에 식당 하나 없을까 하면서 우리는 씩씩하게 걸음을 재촉했다. 길 한쪽에 오징어 덕장이 나타나고,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물오징어를 손질하느라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수월관음도 자비를 건네는 관음보살

위드다르마 편집실

파도치는 물결 위로 솟아오른 암반 위에 관음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짙은 청색의 천의^{天衣}를 걸치고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의 뒤로는 초록색 두광^{頭光}과 찬란한 신광^{身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화면 옆쪽에는 두 손을 뻗은 채 보살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동자가 있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관음보살이 그려진 〈수월관음도〉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지식^{善知識}을 찾아다니던 선재동자^{善財童子}의 기나긴 여정 중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선재동자가 찾아간 보살의 정토, 보타락가산

관음보살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부름에 응해 중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자비의 상징이기도 한 관음보살은 인도 남쪽 바다 건너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며 53명의 스승을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求法} 여행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재동자가 찾아간 스물여덟 번째

스승이 바로 관음보살이었습니다. 관음보살은 암석 위에 앉아 여러 보살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선재동자는 보살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수월관음도〉는 경전에 나온 이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보살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을 담은 수월관음도는 중국



의겸義謙 등, 〈수월관음도〉, 조선 1730년, 비단에 색, 105.7×143.5cm, 보물, 구9954

당나라의 궁정화가 주방^{周坊}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험준한 바위에 앉아 가르침을 구하러 온 선재동자를 바라보는 구도의 수월관음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수월관음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유행한 관음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도상

圖像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도상도 등장하게 됩니다. 관음보살 옆에 나타나는 정병 형태의 변화, 새의 등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온 선재동자를 그윽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고려시대 수월관음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관음보살에게 공경을 표하고 있는 화면 바깥의 예배자를 바라보는 듯한 정면관(正面觀)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수월관음도 속 관음보살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비롭게 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 때문에 예배자는 마주한 관음보살이 직접 자신을 내려다보고 자비를 건네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佛畵僧), 의겸(義謙)의 관음보살

하단의 붉은 화기(畵記)에는 1730년에 불화를 조성했다는 기록과 시주자들, 그리고 실제 그림을 그린 5명의 승려, 의겸·진행(陳行)·행종(幸宗)·채인(采仁)·석인(釋仁)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승려이면서 동시에 장인이었던 승장(僧匠)이 활동한 시대였습니다. 사찰의 불상과 불화는 승려로 구성된 집단이 제작했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며 유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월관음도〉 역시 승장이 그린 작품입니다. 참여한 5명 가운데 불화 제작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의겸입니다.

의겸은 18세기 전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불화승입니다. 의겸은 ‘호선(毫仙, 붓의 신선)’, ‘존숙(尊宿, 덕이 높고 수행이 뛰어난 승려)’, ‘대정경(大正經, 크고 올바른 도리)’ 등의 존칭을 얻을 정도로 명성을 날렸던 화승입니다. 〈진주 청곡사 괘불〉(1722), 〈고성 운흥사 괘불〉(1730)을 비롯해 고성 운흥사와 공주 갑사의 불사(佛事)를 지휘했고, 순천 송광사 응진당, 여수 흥국사 응진당의 주요 불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불화뿐만 아니라 의겸이 조성한 관음보살상도 남아 있습니다. 의겸의 작품을 통해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기량을 펼쳤던 조선시대 승려 장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겸이 그린 수월관음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여수 흥국사 수월관음도〉(1723), 〈고성 운흥사 수월관음도〉(1730) 등 세 점이 남아 있습니다. 세 점 모두 관음보살의 자세와 화면 구성 요소가 거의 유사하며, 대나무·정병·선재동자의 배치, 천의 표현, 용왕과 용녀 등 공양자 유무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 점을 비교해 보면 의겸이 한 가지 도상을 나름대로 바꾸어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유수란〉 제공

불교의 종단명이 다른 이유는?

혜광 정사
시법사 주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으며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지역적으로는 크게 동남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소승불교와 동북아시아에서 수행하는 대승불교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경전을 중시하고 해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교종^{敎宗}과 경전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참선과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선종^{禪宗}으로 나뉩니다.

불교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로도 구분됩니다. 현로불교^{現露佛敎}를 줄인 말인 현교는 ‘석가모니불을 교주^{敎主}로 하여 보여지는 응화불^{應化佛}의 가르침’이고, 비밀불교^{秘密佛敎}를 줄인 말인 밀교는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여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는 법신불^{法身佛}의 가르침’입니다.

현교는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이란 뜻으로 언어 문자상으로 알기쉽게 풀이된 가르침이며, 밀교는 부처님 말씀을 언어나 문자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그 비밀의 가르침은 입으로 하는 진언^{眞言}의 지송, 손으로 맺는 결인^{結印}, 뜻으로 하는 관법^{觀法}을 통해 드러나며 이로써 깨달음을 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종단에는 불교총지종,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여러 종단들이 존재합니다.

대표 불교종단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종단만 30 개에 이르고, 다른 불교협의회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종단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같은데 명칭은 왜 다를까요? 종단명은 각 종단에서 정한 종조, 종지, 본존불, 소의경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조는 종단을 세워 그 뜻을 펼친 사람, 종지는 종단의 핵심 사상인 교의, 본존불은 주요 예배대상인 불상이나 상징물, 소의경전은 종단을 대표하는 근본경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총지종의 종조는 원정 대성사이며, 종지는 유가삼밀을 관행법으로 진언염송을 통해 즉신성불에 이르는 것, 교주는 비로자나불이고 불상 대신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하여 좌우로 만다라를 모십니다. 소의경전은 『대일경』, 『금강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대승장엄보왕경』입니다.

조계종의 경우에는 종조로 도의국사를 모시며,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며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입니다.

사종만다라^{四種曼荼羅} 4개의 형상^{形像} 만다라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대일여래의 자재무애^{自在無礙}인 자성^{自性}만다라를 네 가지 시점의 형상^{形像}만다라로 구현한 것을 사종 만다라라 한다. 공해는 이 4종 만다라를 매우 중시하여 그가 지은 『즉신성불의』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종 만다라의 첫째는 대만다라^{大曼荼羅}이다. 이는 개개의 불·보살에 갖추어져 있는 뛰어난 특징을 더한 모습으로 나타낸다. 또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대만다라라고 한다. 이것은 오상성신관 수행으로써 본존과 일체가 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대지인^{大智印}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삼매야만다라이다. 즉 제존이 지니고 있는 도검·윤보·금강·연화 등의 종류가 이것이다. 또한 이를 그린 것도 삼매야형이다. 두 손으로 여러 가지 인계를 만드는 것도 삼매야형이다. 예를 들어 금강박^{金剛縛}으로 맺는 인^印에서 다양한 인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것을 삼매야지인^{三昧耶智印}이라고도 한다.

셋째는 법만다라로 본존의 종자나 진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종자를 각각 제존의 해당하는 곳에 쓰면 그것도 법만다라이다. 또한 깨달음의 상황을 적은 모든 경전과 글들도 모두 법만다라이다. 이를 법지인^{法智印}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갈마만다라이다. 즉 여러 불·보살 등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이 이것이다. 또한 이를 주조하거나 점토로 반죽하여 만든 것도 갈마만다라이다. 이것을 갈마지인^{羯磨智印}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기술과 같이 4종 만다라는 ‘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법만다라’, ‘갈마만다라’를 말하며, 진언종에서는 이를 ‘대·삼·법·갈’ 등으로 약칭하고 있다. 공해는 대만다라는 대지인, 삼매야만다라는 삼매야지인, 법만다라는 법지인, 갈마만다라는 갈마지인으로 각각 지인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印은 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새^{印璽}’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왕의 인새가 찍힌 것은 국왕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대일여래의 인^印인 대지인은 대일여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즉 큰 지혜의 인이란 바로 대일여래 지혜의 표치이다.

내 앞의 한 사람이 곧 우주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만약 당신이 당신의 노력과 의지로써 원수처럼 지내던 누군가와 결국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비단 당신과 그 사람간의 관계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이 우주법계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며, 당신 내면세계가 한층 더 조화롭고 고요한 본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당신이 하찮게 생각했던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의 평범하거나 못난 모습을 띄고 나타난 이 우주법계의 화현이며, 부처의 화신이다. 그가 바로 이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바로 그렇게 당신 앞에 등장한 삶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제각기 독자성이라는 파편으로 드러난 우주적인 존재들이다. 우주라는 바다에서 개별성의 파도 물결이 당신 삶 앞에 넘실거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이나 친척과의 오랜 불화를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면,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집안일에서의



© Photo by 이경진. All Rights Reserved

성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은 이 우주법계 전체에 자비와 사랑을 퍼워낸 것이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회복은 곧 우주와의 관계회복을 의미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 또한 이 세상 전체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 게 일으킨 한 생각, 한 가지 행동은 사실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대상으로 일으킨 것이다. 당신은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개체적 자아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전체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존재이기에 그렇다.

당신이 곧 우주 그 자체다. 당신 앞의 바로 그 한 사람이 곧 우주 전체다. 당신과 일체 모든 존재는 진실로 하나다. 당신의 행위 하나 하나는 곧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생각들이 내게서 나가고 있는가에 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참된 지혜와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를 도우며, 구하고 살리느냐에 있다. 특히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처럼 가까운 인연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가까운 한 사람, 바로 그 단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라.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고, 벗과 친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참된 지혜와 사랑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간다. 그것이야말로 우주 전체와의 관계 회복인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무리 좋은 책을 펴내고, 아무리 명 강연을 하고 다닐지라도 나와 인연 맺은 단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친척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에 우주법계로부터 외면당한다. 단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우주법계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내 삶에 등장하는 오늘 내 앞에 나타난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그 순간의 최선을 다하라. 그는 인간의 몸을 하고 나타난 부처이며, 우주전체의 대변자이다.

- '법상 스님의 묵묵소리' 공식 카페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②㉑			㉑	
③	㉒		④					⑤	
					⑥	㉑			
	⑦			㉒		⑧	㉑		㉒
㉒			⑨				⑩		
⑪		㉑			㉑				
		⑫		㉒			⑬㉑		
						⑮			
	⑭						⑯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가로 열쇠

- 1년 중 총지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불공, 정월 첫째 월요일~일요일에 마침
- 벽암록에 나오는 운문 선사의 고사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뜻
- 물속에 잠김
- 음악의 장르, 베토벤 피아노 000 8번
- 불교에서 3독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 반의어 보수
- 녹색 열매의 신맛이 나는 감귤류의 과일
- 태양이 뜨고 지는 정도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시간상의 차이
- 불교에서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물품을 전시, 진열, 판매하는 전람회
- 아시아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있는 왕국, 2022년 월드컵 개최지
- 현재 브라질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세계 스포츠 스타 연봉 TOP 4
- 을사조약, 한일병합조약 등 민족을 배반한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
- 심리적 조작으로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세로 열쇠

-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 둘 이상의 개인, 단체, 국가가 동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
-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피는 모양
-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 불교의 육바라밀 가운데 제 1의 덕목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 단청문양, 벽화 등 목조구조물에 채색 및 시공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
-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합리적 선택에 대한 가치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대철학의 아버지
-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혁신 운동으로 근대화의 사상적 토대
- 용뿔을 뜻하는 순우리말
-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케냐의 남부 지방, 교정용 워킹화의 이름
- 조선의 제 1대 왕

지난호 정답

①㉓	동	지	㉒	기	도		②	아	㉑	킬	레	㉔	스	건
총			생		㉕	대			리			키		
하			③	충	렬	왕			④	만	리	장	성	
초						대			자					
	⑤㉖	대	자	대	비			⑥	로	㉗	컬	푸	㉙	드
	세						㉚	우			러			레
⑦	타	지	마	㉛	할		바			링			스	
	보			⑧	슈	바	이		㉜	처		㉝	투	
⑨㉞	문	살			타				⑩	서	㉟	방	정	* 토
도		㉟	테	트	리	스					생			기



김용오 | 포항 수인사 교도

돌돌 말린 세월

세월이 돌돌 말린 채로 길거리를 서성이며
임인년(壬寅年)을 알리던 그 용맹
세상의 모든 것 못 할 것 없을 것 같이
다짐을 했던만
지금 너는 어디에?

이제 돌맹이 하나로 만들어진 물결 나이테 되어
더 이상 커질 수 없음을 아는 나이
참회의 공간을 내 안에 더 많이 두어야 할
나이인걸 알아야 하고
하나, 둘 비우면서 살아갈 나이란 것도
국자가 국 맛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길

나이 예순 여섯이면요
바라볼 시간도
먹을 시간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나이인 것도 안다

호랑이가 세월 속으로
꼬리를 감추기 시작하고
계묘년(癸卯年)이 돌돌 말린 세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 준비를 한다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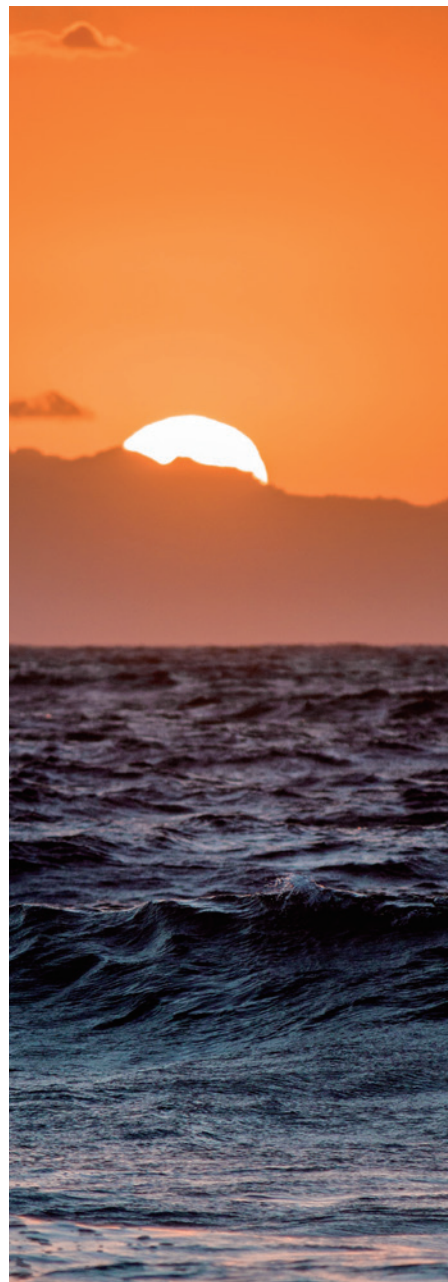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종철 법 공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이영희 이인성 이태남 자선화 정법계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배려를 다룬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혜의 트랙〉 간디의 신발 한 짝,
〈살다보면〉 가마꾼의 탄식,
〈붓다인미디어〉 주인공의 변화로
삶의 의미를 환기시킵니다.

신발 주운 사람을 위해 다른 한 짝을
창밖으로 던진 간디의 마음,
가마 메는 괴로움을 공감하는
정약용의 마음,
반복적인 삶 속에 지친 주인공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한 마음.
갈수록 추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시 찾고 밝혀야할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나
내일을 맞이하게 된 사랑의 블랙홀
주인공처럼, 더 넓은 시선과 마음으로
매일이 선물같은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1월호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방법은 많다
밝은 미소, 환한 얼굴, 다정한 말
그게 다 보시이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